

올해 프로야구 KIA타이거즈와 프로축구 광주FC는 나란히 미소를 지었다. 지난해 KBO 리그 6위에 그치며 가을야구 진출이 좌절된 KIA타이거즈는 열두 번째 우승을 일궈냈고, 지난해 K리그 3위에 오르며 역대 최고 성적을 거둔 광주FC는 창단 첫 국제 무대에서 동아시아 2위를 달리며 돌풍을 이어가고 있다. 전남일보는 2024년 한 해 스포츠 팬들과 지역민들을 웃고 울렸던 KIA타이거즈와 광주FC의 5대 뉴스를 간추렸다.

편집자주

저력의 호랑이 군단... V12 넘어 연패 넘본다



●이범호 제11대 감독 전격 선임

올해 KIA타이거즈는 스프링 캠프 출발 직전 금품 수수 관련 검찰 수사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종국 제10대 감독을 전격 경질하며 어수선한 분위기에서 시즌을 준비하게 됐다.

최준영 대표이사는 보름 만에 이범호 타격 코치를 내부 승격하는 결단을 내렸고, 초보 사령탑인 이 감독에게는 분위기 수습이라는 막중한 과제가 주어졌다.

이 감독은 형님 리더십으로 빠르게 팀을 추슬렀다. 유인함과 결단력을 모두 갖춰 믿고 따를 수 있는 인물로 평가받았고, 7년 만에 팀을 정상에 올려놨다.

KIA는 KBO 리그 최고 대우를 안겼다. 이 감독의 임기는 2025시즌까지로 연봉은 3억원이었으나 이를 파기하고 계약금 5억원과 연봉 5억원, 옵션 6억원 등 총액 26억원에 2027시즌까지 동행한다.

●효자 외인과 슈퍼스타의 등장

올해 KIA타이거즈는 공수 양면에서 압도적인 기록을 냈다. 투타의 중심에는 애런 브룩스 이후 3년 만에 효자 외인으로 등극한 제임스 네일과 프로 3년 차에 슈퍼스타로 떠오른 김도영이 자리 잡았다.

네일은 정규시즌 26경기에 선발 등판해 12승 5패와 평균자책점 2.53을 기록했다. 페넨트레이스 막바지 턱관절 골절로 이탈했음에도 방어율왕에 등극했고, 엄정

- 1 이범호 제11대 감독 전격 선임
- 2 효자 외인과 슈퍼스타의 등장
- 3 추격과 약재 모두 이겨낸 저력
- 4 7년만 우승은 왕조 재건 기틀
- 5 스토브리그서 연패 도전 박차

난 프로 정신과 회복력으로 조기 복귀해 한국시리즈 2경기에서 1승과 평균자책점 2.53의 성적으로 우승 공신이 됐다.

김도영은 141경기에서 타율 0.347과 38홈런, 40도루, 109타점, 143득점을 기록하며 맹활약했다. 특히 득점상과 장타율상을 거머쥐며 올해 KBO 리그에서 유일한 멀티 타이틀 홀더가 됐다.

또 월간 10홈런-10도루를 시작으로 전반기 20홈런-20도루와 내추럴 히트 포터 사이클(안타, 2루타, 3루타, 홈런을 차례대로 기록), 쿼터폴 트리플(3할 타율-30홈런-30도루-100타점-100득점) 등 대기록을 달성했고 올해 KBO 리그 MVP와 골든글러브까지 거머쥐었다.

●추격과 약재 모두 이겨낸 저력

올해 KIA타이거즈는 유독 경쟁 상대에게 강한 모습을 보였다. 지난해 21회에 달했던 한 점 차 패배가 올해는 12회로 줄어든 것이 뒷심을 입증한다.

탄탄한 필승조를 바탕으로 역전할 수 있는 힘을 갖췄다는 점도 고무적이다. 장현식과 전상현, 정해영으로 이어지는 'J-



이범호(왼쪽) KIA타이거즈 제11대 감독이 심재학 단장과 지난 2월15일 호주 캔버라 나라분다 볼파크에서 진행된 1차 스프링 캠프에서 훈련을 지켜보고 있다.

KIA타이거즈 제공

J-J 트리오'를 합쳐 194경기에서 191.3이닝을 3점대 방어율로 막아냈다.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갖췄다는 평가도 받는다. KIA는 월 크로우와 이의리, 윤영철, 제임스 네일이 차례로 부상을 입어 개막 선발 로테이션에서 양현종이 유일하게 자리를 지키는 초대형 약재를 맞았다.

하지만 캠 알드레드와 에릭 라우어, 에릭 스타우트 등의 영입으로 과감한 투자를 단행하는 동시에 황동하와 김도현 등 새로운 자원들을 발굴하며 공백을 완벽히 메웠다.

●7년만 우승은 왕조 재건 기틀

올해 KIA타이거즈는 7년 만에 우승을 차지하며 왕조 재건의 기틀을 마련했다. 개막 전부터 최강 전력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은 KIA는 87승 2무 55패(승률 0.613)의 압도적인 성적을 거뒀다.

조기 우승 확정도 KIA의 압도적인 경기력을 뒷받침한다. 2009년과 2017년 모두 최종전에서 우승을 확정 지었던 KIA는 올해 페넨트레이스 일곱 경기를 남겨두고 우승 축포를 터트렸다.

한국시리즈에서도 흐름은 이어졌다. KIA는 4승 1패로 5차전에서 통합 우승을

결정지으며 V12를 완성했다. 다섯 경기에서 허용한 실점은 15실점, 평균 3실점으로 상대를 쫓공 묶었다.

최준영 대표이사는 왕조 재건을 천명했다. 이범호 감독과 심재학 단장은 신중한 모습이지만 디펜딩 챔피언인 KIA가 최강 전력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은 상대를 위압하기에 충분하다.

●스토브리그서 연패 도전 박차

디펜딩 챔피언 자격으로 새 시즌 준비에 나선 KIA타이거즈는 연패 도전을 위해 차근차근 준비를 해나가고 있다. 가장 큰 과제로 꼽힌 자유 계약(FA) 시장에서는 절반의 성공을 거뒀다는 평가다.

올해 불펜에서 최다 경기와 이닝을 책임진 장현식이 계약금 16억원과 연봉 36억원 등 4년 총액 52억원에 LG트윈스로 떠났지만 보상 선수로 강효종을 지명하며 미래 선발 자원을 확보하는데 성공했다.

또 임기영과 계약금 3억원과 연봉 9억원, 옵션 3억원 등 3년 총액 15억원에 계약을 맺었고 서건창과는 장기전이 예상되기는 하나 최근 다시 눈높이를 맞춰가는 단계에 있다.

트레이드 시장에서는 KIA가 승자가 됐다. KIA는 2026 KBO 신인 드래프트 1라운드 및 4라운드 지명권과 현금 10억원을 양도하는 대신 키움히어로즈의 마무리 투수이자 팀 코리아의 필승조인 조상우를 품으며 더 강한 필승조를 구축하는데 성공했다.

한규빈 기자

돌풍의 노란 물결... 한반도 넘어 아시아까지 번졌다



●6연패 충격 받고 K리그1 잔류

올해 개막 2연승을 달리며 순항하는 듯했던 광주FC는 곧바로 6연패에 빠지며 최대 위기에 빠졌다. 2라운드까지 단독 선두였으나 9라운드(8라운드 순연)에서는 최하위로 곤두박질했다.

강등의 그림자가 엄습했지만 강기정 구단주(광주시장)와 노동일 대표이사는 굳건한 믿음을 보였다. 이정호 감독은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는 제목의 편지를 받기도 했다.

이 감독을 비롯한 광주 선수단은 반등에 성공했다. 2연승으로 연패의 늪에서 탈출한 뒤 중위권 도약에 성공하며 파이널 A(6위 이상) 경쟁에 뛰어 들었다. 비록 광주는 정규 라운드에서 7위를 기록하면서 파이널 B(7위 이하)로 향했으나 1부리그 잔류를 이뤄냈다. 14승 5무 19패(승점 47)로 최종 순위 9위를 기록했다.

●한반도 넘어 아시아 향한 돌풍

올해 리그에서 아쉬움을 남긴 광주FC는 AFC(아시아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엘리트(ACLE)에서는 돌풍의 중심에 섰다. 주도권 축구로 불리는 특유의 색채가 아시아 무대에서 두 위력을 발휘한 것.

요코하마 F. 마리노스를 시작으로가와 사키 프론탈레(이상 일본)와 조호르다를 탁집 FC(말레이시아)를 연파하며 개막 3연승을 달린 광주는 비셀 고베(일본)에

- 1 6연패 충격 받고 K리그1 잔류
- 2 한반도 넘어 아시아 향한 돌풍
- 3 정호연·김경민 국가대표 발탁
- 4 훈련장·경기장 약재 해결 실패
- 5 이적설 지운 이정호 감독 잔류

게 일격을 당했다.

하지만 상하이 선화를 꺾으며 분위기를 살린 뒤 상하이 하이강(이상 중국)과는 무승부를 거두며 리그 스테이지에서 4승 1무 1패(승점 13·득실 +6)로 동아시아 2위에 올랐다. 비록 16강 진출 조기 확정에는 실패했지만 광주는 토너먼트 티켓 확보를 눈앞에 두고 있다. ACLE는 K리그와 달리 추첨제로 진행되는 리그 스테이지 잔여 경기는 내년 2월 중순 이어진다.

●정호연·김경민 국가대표 발탁

광주FC는 올 시즌을 앞두고 이순민이 대전하나시티즌으로 이적하며 태극전사가 전무했지만, 시즌 도중 두 명의 국가대표를 새로 배출하며 자존심을 세웠다.

정호연은 2026 FIFA(국제축구연맹) 북중미 월드컵을 앞두고 있는 국가대표팀에 두 차례 승선했다. 지난 3월 2차 예선 태국 2연전에서 황선홍 임시 감독의 부름을 받은 정호연은 9월 3차 예선 팔레스타인전과 오만전에서는 홍명보 감독에게 호출됐다.

김경민은 지난 11월 3차 예선 쿠웨이트



광주FC 이정호 감독(오른쪽)이 지난 24일 구단 사무처에서 잔류 협상을 마무리한 뒤 노동일 대표이사와 함께 미소 짓고 있다.

광주FC 제공

전과 팔레스타인전을 앞두고 홍명보 감독에게 발탁됐다. 두 선수 모두 A대표팀에는 최초 발탁이다.

잉글랜드 챔피언십(2부리그) 스완지 시티 AFC로 이적한 엄지성도 지난 9월 3차 예선 팔레스타인전과 오만전에서 국가대표팀에 복귀해 의미를 더했다. 엄지성은 지난 2022년 1월 튀르키예 전지훈련 소집 이후 2년 8개월 만에 국가대표 유니폼을 입었다.

●훈련장·경기장 약재 해결 실패

광주FC는 올해 숙원이었던 성장할 수 있는 훈련 여건을 갖출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실제로 지난 1월 광주축구센터의

관리 주체가 광주시체육회에서 광주 구단으로 변경됐고, 3월에는 천연 잔디 2면으로 재조성과 조명탑 설치도 확정됐다.

5월에는 팬들이 직접 공사 현장을 방문하고 6월에는 원격 살수 시설 시연과 공개 훈련 등 대대적인 전용 훈련장 개장 행사를 열었지만 광주 선수단에게는 약 2개월 만에 도돌이표가 붙었다.

광주축구센터의 고질적인 배수 문제가 재발한 것인데 이로 인해 천연 잔디가 괴사했다. 부상이 발생하는 등 선수단이 사용할 수 없는 수준에 이리 광주축구전용 구장에서 훈련을 병행해야 했고 폭염까지 겹치며 경기장 역시 크게 손상됐다.

가장 큰 문제는 새 시즌에도 문제 해결이 요원하다는 점이다. 올해는 장성 옐로우시티스타디움을 오갔지만 이는 선수단 컨디션 난조와 부상 발생으로 연결됐고, 광주월드컵경기장의 경우 광주시체육회와 소통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적설 지운 이정호 감독 잔류

강등 1순위로 꼽히던 광주FC를 돌풍의 중심에 세운 이정호 감독은 K리그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관심의 대상이었다. 올해 아시아 무대에서도 돌풍을 일으킨 덕분에 실제로 러브콜을 받기도 했다.

이 감독은 시즌 도중 들어온 영입 제안을 모두 거절하며 광주와 의리를 지켰다. 한창 1부리그 잔류와 아시아 무대 16강 경쟁을 펼치는 상황에서 이적설이 나타날 경우 구단 안팎으로 초래될 혼란에 대한 일종의 배려도 있었다.

하지만 지난 여름 이적 시장에서 한국 프로축구연맹의 재정 건전화 규정을 충족하지 못하는 등 열악한 광주 구단의 현실에 이 감독의 마음도 흔들릴 수밖에 없었다. 실제로 K리그1 전북현대모터스와 K리그2 인천유나이티드 등이 접촉하며 이적설이 일기도 했다.

광주는 연봉 인상과 선수 구성 지원 등이 감독의 요구안을 일부 수용하며 마음을 붙잡는데 성공했다. 이 감독 역시 새로운 도전 대신 의리를 택했고, 새 시즌에도 광주에서 K리그와 아시아 무대 도전을 병행하게 됐다.

한규빈 기자